



Dable | Press Kit

Content Discovery Platform, Dable

Updated Nov. 2020

사용자와 미디어, 콘텐츠를 연결하자

데이블은 ‘사용자와 미디어, 콘텐츠를 연결하자’는 미션을 가진 콘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다.

데이블은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처리 및 개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유통사(앱, 블로그 등) 등 2,500여 고객사에 고품질 개인 맞춤형 콘텐츠 및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현재 데이블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No.1 콘텐츠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대표 이사 **이채현**
창업일 **2015년 5월 6일**
직원수 **91명**
(한국 69명, 해외 22명)

주요 서비스

데이블 뉴스
데이블 네이티브애드
카라멜.ai

투자유치

시리즈C 140억원

서비스국가

- 한국
- 일본
- 대만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말레이시아

대표 투자사

SV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K2인베스트먼트 등



매월 수집 중인 Unique User 수	5.4억명
최근 4주 동안 매주 방문하는 Active User 수	5,000만
사용자 행동 로그 수집 및 학습	월 250억 건

매월 **약 50억 건**의 추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1억 건**이 넘는 클릭 발생

- 2015 데이블 설립
‘데이블 뉴스’ 서비스 런칭
시드머니 투자 유치
- 2016 ‘데이블 네이티브애드’ 서비스 런칭
시리즈A 투자 유치
- 2017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 서비스 런칭
- 2018 대만,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리즈B 투자 유치
- 2019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서비스 런칭
‘카라멜.ai’ 서비스 런칭
- 2020 DSP 출시 및 네이티브애드 익스체인지 전환
미디어 ‘핀치’ 인수
시리즈C 투자 유치

2015



K-Global DB-Stars
대상(미래부 장관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7



TIPS 어워드
창업진흥원장상 수상

2019



B2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0



‘SW고성장클럽200’
고성장기업으로 선정





이채현

Co-founder & CEO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수석 졸업, 석사

2007 NASA Ames Research Center 인턴

2008 LG Uplus 차세대 브라우저 개발

2010 NHN 검색엔진 Crawler 개발

2011 SK Planet RecoPick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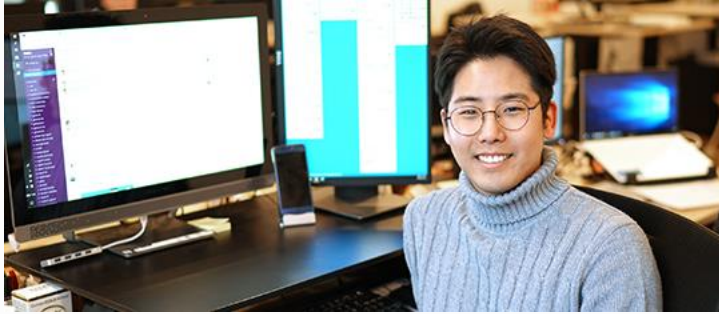
2015 데이블 설립

이채현 대표가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NASA에서 인턴을 할 때다. 당시 연구하던 기술이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대다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채현 대표는 당장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채현 대표는 네이버에서 크롤링 로봇 개발 업무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빅데이터 플랫폼과 추천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추천을 통한 디스커버리 시대의 도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채현 대표는 데이블의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처리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사람 간, 기업 간,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 없이 누구나 콘텐츠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백승국

Co-founder & CSO

데이블 공동창업자이자 CSO로,
데이블의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데이블의 사업모델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유치와 채용, 조직설계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 10년간 삼성 SDS, 롯데미래전략센터, SK플래닛 등 IT/커머스 산업에서 사업전략 및 프로젝트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롯데미래전략센터에서는 연구원으로서 유통산업의 시장 전망을 하고, 점포별 매출을 예측하는 등 산업 전략 컨설팅 업무를 했다. SK플래닛에서는 사업개발 매니저로 참여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미래전략 석사 과정을 마쳤다.



김군우

Co-founder & CPO

데이블 공동창업자이자 CPO로,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광고 제공 API 서버 개발 등 웹 플랫폼 개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웹 개발자로서 엔씨소프트, 네이버, SK플래닛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다. 엔씨소프트(오픈마루 스튜디오)에서는 레몬SK플래닛(RecoPick)펜, 게이머용 SNS 등의 웹 서비스를 개발했다. 네이버(웹표준개발팀)에서는 N-WAX, N-MET 등 웹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다. 또 SK플래닛(RecoPick)에서는 쇼핑물 추천 솔루션 RecoPick의 웹 플랫폼 등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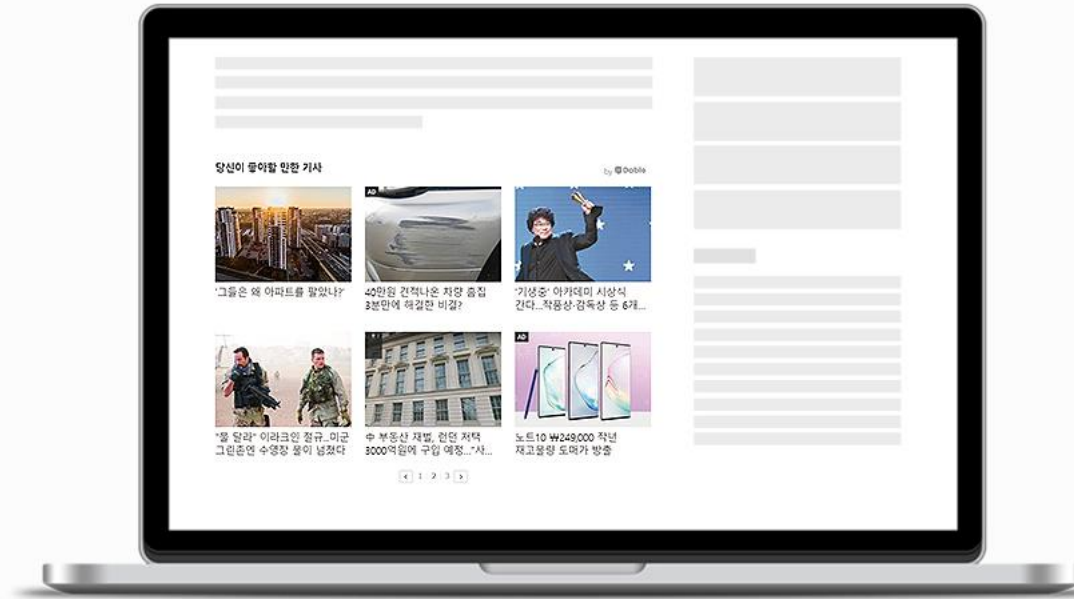


박형근

CFO

2019년 재무이사로 데이블에 합류했다. 데이블에서 재무 회계 관련 업무를 비롯해 인사, 홍보, 마케팅, 총무 등 경영기획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08년 한영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였으며, 약 12년 동안 재무 컨설팅, 투자 업무 등 금융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하였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기업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솔본인베스트먼트에서는 국내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하나 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기업의 감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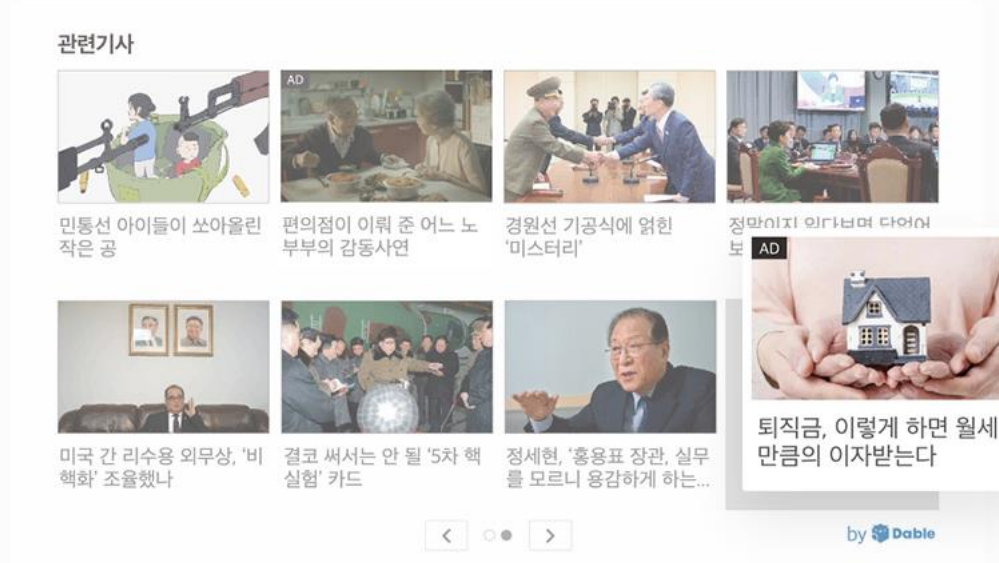
데이블 뉴스

사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해 고품질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솔루션이다.

미디어 사이트 우측이나 하단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와 같은 위젯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경쟁력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발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이트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용자가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페이지뷰와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미디어의 수익 향상에 기여한다.



데이블 네이티브 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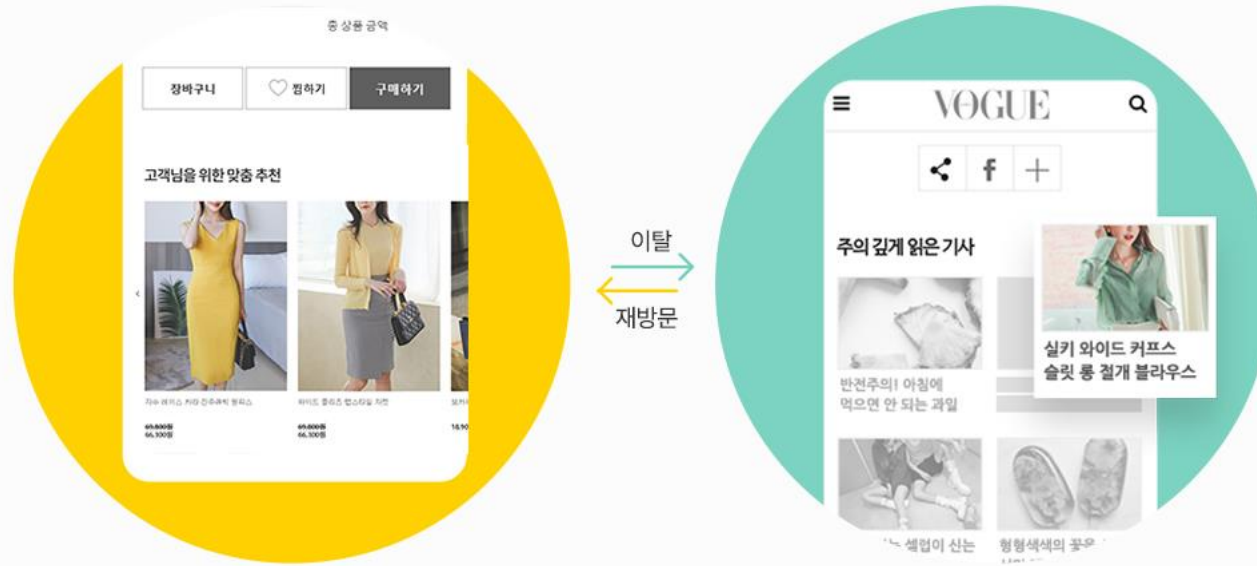
웹 사이트 UI 및 주변 콘텐츠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이다.

RTB 기반 데이블 네이티브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국내외 2,500여 미디어를 비롯해 구글, MSN, 카카오 등의 지면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경쟁력

사용자의 시선을 끄는 추천 위젯 내에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높은 클릭률을 보이고 있다.

또 여행 기사를 읽고 있는 사용자에게 항공권 광고를 보여주는 등, 사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해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를 얻고 있다.



카라멜.ai

커머스 전용으로 개발된 광고 솔루션으로, 개인화 상품 추천과 리타겟팅 광고를 결합하였다.

‘카라멜.ai’를 통해 리타겟팅 광고를 집행하는 커머스는 개인화 상품 추천 솔루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쟁력

커머스 사이트 방문자에게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함께 구매한 상품’ 등을 추천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
또한 해당 고객이 다른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커머스에서 관심을 보였던 상품을 노출함으로써 사이트 재방문을 유도한다.

데이블, 9월 해외 매출액 3억원 돌파... 2019년 해외 월 평균 매출 성장률 32%

데이블이 9월 해외 매출액 3억원을 돌파했다.
18일 데이블은 2019년 9월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거둔 월 매출액이 3억원을 ...

뉴스웍스 | 2019.10.18

데이블, RTB 기반 네이티브 애드 익스체인지로 전환... 아시아 최대 규모

네이티브 애드 플랫폼 데이블 대표 이채현이 실시간 입찰
(Real-Time Bidding/이하 RTB)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티브
애드 익스체인지...

디지털 타임스 | 2020.07.22

데이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추천 "창업 5년 만에 전 세계 1500개 미디어를 고객사로"

사명은 낯설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데이블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

잡앤조이 | 2020.04.29

B2P 플랫폼 '데이블(Dable)'의 린 스타트업 전략

SK 플래닛 사내 벤처 핵심 인력들이 나와 2015년
설립한 데이블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 맞춤형 콘텐츠를 제시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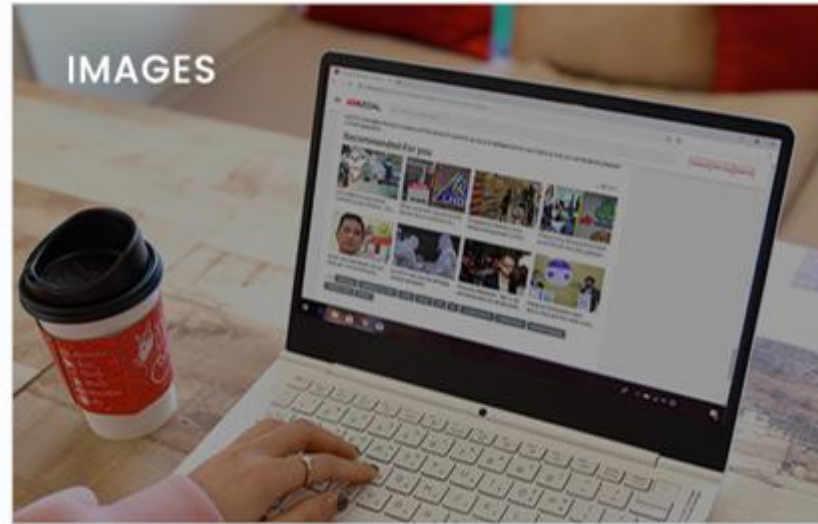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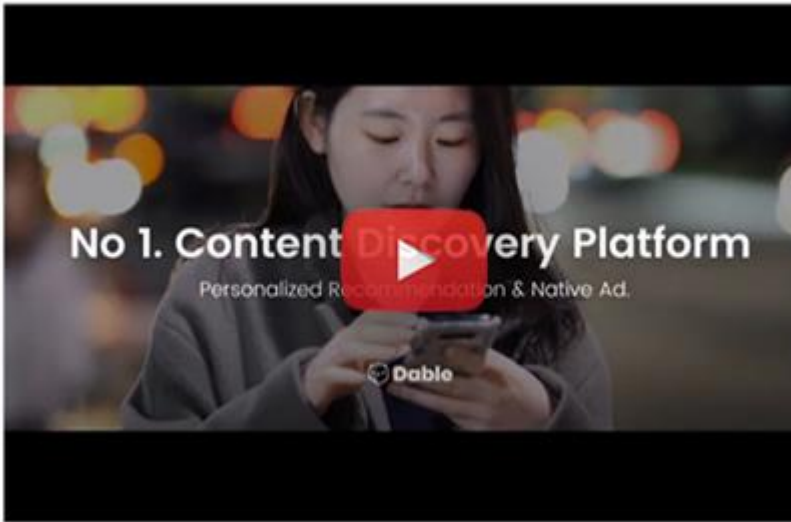
DBR | 2020.07

데이블, '핀치' 서비스사 엔브이엠 인수... "미디어 퍼블리싱 플랫폼으로 사업 확장"

개인화 콘텐츠 추천 플랫폼 데이블(대표 이채현)이
미디어 서비스 '핀치(Pinch)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브이엠을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경제 | 2020.07.15

[더 많은 기사 보기](#) 





언론보도 문의

| press@dable.io 070-5178-8909

PR manager

| 강은진 eunjin@dable.io 010-6568-2024

| 송예은 yeeun@dable.io 010-3415-7506